

학교는 책임없나?

학교에서 인쇄가 사라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17개 교육기관에 인쇄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인쇄과' 라는 명칭을 지닌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복합명사에 '인쇄' 라고 포함된 7개교가 있을 뿐이다.

요즘 인쇄업계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당장 필요한 기술인력만 7천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인쇄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인쇄기술자도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국내사정은 무엇인가 왜곡된 면도 없지 않다.

사실 최근의 인쇄현장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3D업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최신에 기계와 좋은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인쇄사를 방문해보면 놀랄 정도로 변화된 작업환경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인력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인쇄업계에 있다.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작업환경을 마련해서 유능한 인력을 불러모으는 일은 인쇄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인력난 문제가 나오면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학계와 인쇄업계가 이론과 현장학습의 조화를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쉽게 공감대를 이루곤 한다. 그러면 그동안 학계는 할 일을 충실히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계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쇄업계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사실을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든가 발표를 위한 발표, 울타리 안에서의 주장 등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모든 책임을 인쇄업계에 떠넘기고 시류에 쫓아 인쇄과 이름만 지운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겠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대학과정 인쇄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신구대학은 학교설립자의 확고한 의지로 1974년에 '인쇄과' 가 설치 되었는데 1975년에 '사진인쇄과' 로 변경되더니 1978년에는 '인쇄과' 로 복원되었으며 2000년에는 '인쇄정보미디어과' 로 바뀐 데 이어 올해에는 인쇄를 떨어낸 '정보매체과' 로 학과명을 바꿔버렸다. 이와 함께 현장과 동떨어진 커리큘럼

과 보잘 것 없는 실습기자재에 머물렀던 교육기관들의 무성의한 학과운영도 짚어 볼 문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선생님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열성과 제자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선생님들은 인쇄를 가르치겠다는 사명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사랑하기는커녕 공공연하게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외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섭섭한 사례도 없지 않다.이제는 산학 모두 인쇄업계의 미래를 진지하게 숙의하고 고민할 시기가 다. <오세익·편집주간>



선진국에서는 인쇄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인쇄기술자도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국내사정은 무엇인가 왜곡된 면도 없지 않다.